

## 권두언

강윤구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는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 소모성 재료로, 거즈·붕대·반창고에서부터 인공심장판막과 같은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 품목과 인체조직까지 그 유형과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는 행위, 약제와 함께 치료재료도 급여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고,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등재여부 결정, 가격산정, 코드 표준화나 유통·사용과 관련된 모니터링 및 관리,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된 치료재료에 대한 목록 재정비나 상한금액 조정 등의 재평가까지 치료재료 사용과 관련된 전 과정을 관리하는 데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가격 산정 기전이나 분류체계 개선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호의 정책동향에서는 전반적인 치료재료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치료재료 관리와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외국의 치료재료 관리 현황 및 시사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현황, 그리고 치료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고찰과 정책제언을 제시해 주었다.

치료재료의 품목수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일회용치료재료 사용 선호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재료의 체계적 관리는 국민의 건강,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HIRA정책동향에 실린 각계의 의견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